

石油政策 有感 (其2)

俞石在

제 8회 아시아청소년농구대회에서 台灣이 철수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겉으로는 國旗를 사용하느니, 안하느니, 어느 旗를 사용해야 하느니, 國歌는 언제 부를 수 있느니 등을 둘러싼 대립이 이유로 거론되는 모양이지만, 문제의 根底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감정의 눈사태(雪崩) 현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무드가 어느 한 방향으로 바뀌는 기미가 보이면 순식간에 감정의 傾倒가 일어나 평형감각을 상실하고 한쪽으로 우르르 쓸리게 되는 현상이다.

台灣을, 아니 自由中國을, 가장 가까운 우방의 하나라고 同病相憐의 情으로 대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中共불(?)이 이하는 싫더니 이젠 좀 너무 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상황이 급선회하는 것이다. 아무리 地政學的의 입장에서 살아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다는 감이 드는 것이다. 좀더 뾰뚱하게 正道를 밟으면서 毅然히 대처할 수도 있었으리란 아쉬움을 禁할 길이 없는 것이다.

× × ×

남이 하는 것은 따라 해야 하고, 유행을 좇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世流를 거스르고는 견딜 수 없는 心狀— 最近世史 이후로 우리 사회는 平準化의 개념에 強迫되어 있고, 平等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콘센서스를 갖는 유일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류학교의 質을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학력 수준저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高교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아파트 투기가 가열하면 누구나 내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는듯 눈빛이 충혈되어 날뛰는 作態도 어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너도 나도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現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他人과 같은 크기의, 같은 구조의 틀 속에서 동일한 生活樣態를 갖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다. 평등에 대한 強烈한 希求意識이 심리의 核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가정과피범에 대한 관심이 高潮되면 마치 國家的 命題라도 되는 것처럼 온 나라가 강도의 흥포화이야기 뿐이다. 텔레비전의 요리시간에 나온 재료는 그날 시장에서는 売盡되어 구하기도 힘들고, 프로야구가 인기를 끌면 온 동네가 아마야구는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프로야구에만 열중한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싹 잊고 새로운 테마에 벌떼처럼 달려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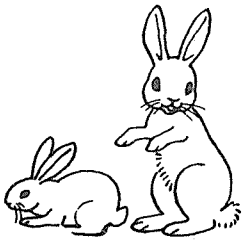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사이에 違和感造成이 가장 唾棄하여야 할 사회적 反德目으로 간주되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외국에는 개경기라는 것이 있다. 게임 룰은 競馬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단지 말은 騎手が 타고 방향을 조정하지만, 개는 사람이 탈 수 없으므로 뛰는 방향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끼모형을 트랙에 장치하여 자동으로 돌게 하면 개는 토끼를 잡으려고 渾身の 힘을 다해 쫓는다. 이런 토끼가 바로 우리 사회에 있어 가정과괴범이고 텔레비전의 요리시간이고 프로야구가 아닐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토끼를 쫓아 모두가 같이 뛰어야만 하는 것일까.

× × ×

이러한 상황에서 油價自律化를 추진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른다. 油價自律化는 평균적 개념에 입각한 가격책정시스템을 止揚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試圖이다. 지난 4, 5년간 動資部는 수 차례에 걸쳐 油價自律化에 대해 심층적 검토를 거듭하였으나, 번번이 시행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패의 근본적 原因은 우리 사회에 평균가격방식이 주는 心理的 安堵感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油價自律化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선 경쟁원리를 도입해도 평균화개념이 무너지는 느낌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손을 댈 일이다.

석유정책은 수급과 가격의 두가지 側面으로 구성된다. 수급과 가격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表裏關係에 있다. 가격에 歪曲이 있으면 수급에 차질이 나타나고,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

나면 가격이 흔들린다. 따라서 숫자로 표시되고, 그리하여 평균의 감각이 쉽게 捕捉될 수 있는 가격을 먼저 풀지 말고 需給부터 자율화해 나가면 가격쪽은 자연스럽게 競爭의 場으로 들어 올 것이다.

석유정책이 橫的으로는 수급정책과 가격정책으로 구성되지만, 縱的으로는 원유도입, 생산, 제품유통의 3 단계로 구분된다. 그동안의 油價自律化는 「생산단계의 가격」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이것도 周辺부터 즉, 원유와 제품의 유통단계부터 시작하여 중간부분으로 좁혀 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실 원유사이드는 평준화제도 폐지로 어느정도 자율화의 기본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이름도 油價自律化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평균개념에 反하는 느낌을 주는 명칭에서 탈피하여 「石油流通 自律化」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저항감을 덜 誘發할 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반드시 留意하여야 할 것은 가격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限界費用水準을 확보한다는 利點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需給上의 비예측성을 감수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예측성내지 혼란은 규제를 통해 矯正하려고 하지 말고,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誘引策을 쓰거나, 정부차원의 보완책으로 克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유사의 회생을 통해 가격의 競爭化와 수급의 안정이라는 두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고, 역효과가 더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앞으로 油價自律化를 다시 검토할 경우에는 원유도입측면과 제품유통측면의 수급상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는 取次를 取하면서 工場出荷단계의 가격자율화를 최종적 목표로 잡아야 할 일이다.

금년은 봄이 늦었다. 그러나 역시 화사한 햇살과 양중맞은 꽃망울과 함께 봄의 감각은 到處에 漫然하다. 이제 슬슬 油價自律化를, 아니 石油流通自律化를 재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는지.....